

# 發明教室

##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燈保護器 國內市場 석권

夫惠工業社 李 吉 夫 사장



〈李吉夫 사장〉

'85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電氣部門 銀賞(商工部長官賞)을 受賞한 李吉夫씨 (47).

듬직한 體軀에 호탕한 性格 그리고 구수한 慶尙道 사투리를 구사하는 李씨는 걸보기에는 發明企業人 이라기 보다는 人情많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생각을 갖게한다.

그러나 그는 美 웨스팅 하우스에서도 명성을 떨치던 電氣技師. 美國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둘러 歸國, 오늘의 發明企業人으로서의 자리를 構築했다.

李씨가 15년간이나 몸담던 美 웨

스팅 하우스를 떠나 歸國한 것은 지난 81年.

韓國人 特有의 獨創力으로 會社 發展에 크게 寄與해 웨스팅 하우스 社長の 극구 말류도 뿌리치고 歸國을 서둔데는 나름대로 큰 뜻이 있어서였다.

웨스팅 하우스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교국에서 꽃피워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 發明(燈保護器)은 웨스팅 하우스 산하 비행기 積납고 電氣技師로 在職時 아이디어를 얻었지요.』

李씨가 근무하던 비행기 積납고 170m 높이의 천정에는 3천개의 전구가 달려 있었는데 2~3대의 비행기만 들어왔다 나가면 그 충격으로 150개 내외의 전구가 떨어져 버려 이 問題를 解決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

천정 높이가 170m나 되어 특수 장비를 동원해도 하루 20개의 전구밖에 보수할 수가 없어 技術先進國인 美國에서 조차 골치거리였던 문제를 해결하자 李씨는 웨스팅 하우스

의 寶物로 浮上, 웨스팅 하우스의 外國 社員으로는 하늘의 별따기 격인 社長 表彰까지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꿈을 꾸어도 친구 꿈만 꿀 정도로 친구에 미쳐버린 李씨가 이 發明을 위해 5年동안 試驗용으로 사용한 전구는 무려 3트럭.

주위에서의 미쳤다는 비웃음과 資金부족으로 몇번이나 研究를 중단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李씨의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두독한 鬨장은 研究 시작 5年만에 結實을 맺었다.

李씨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이미 特許·實用新案·意匠 登錄을 필하고 실수요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性能 試驗을 해본 結果 燈保護器가 없는곳(선박, 건설현장등)은 계속 단선이 되었으나 설치된 곳은 전력 이상이 없어 제품의 優秀性이 立證 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 효성수산 오징어 배들과 포항제철등에서는 이 제품을 설치하여 독특한 재미를 보고 있다. <☞>

# 第36回 發明教室

2月 14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2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6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부혜공업사 李吉夫사장과 슬기산...○
- ...업 南宮 湘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 정수기 發明의 선두주자 슬기산업 南宮 湘 사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해식품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자연식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생수도 최근들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도 생수를 즐길 수 있는 정화생수기를 개발한 슬기산업 南宮 湘 사장(53)은 믿고 마실수 있는 생수는 건강에도 좋다고 소개한다.

南宮사장이 개발한 이중탑 정화생수기는 3단계(필터, 활성탄, 이온교환수지) 정수기와 3단계(맥반석, 의왕석, 필터) 생수기를 결합시켜 물의 자연순환방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수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생수가 되게 하여 미네랄이 풍부한 약알칼리 물이 만들어진다.

南宮사장은 정화생수기의 특징에 대해 『물을 분사시켜 용존산소를 높였고, 필터, 활성탄, 맥반석, 의왕석 등을 한통에 차례대로 내장시켜 교환이 편리하고 공기압을 이용해 신선하고 청량한 물이 즉각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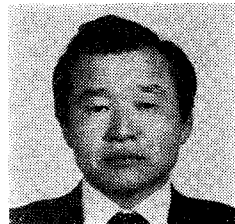
오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미 특허를 획득하고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중이다. 시중 소매가는 9만원으로 정수기 하나만 있는 것은 3만원에 시판되고 있다.

전부 정음이 고향인 南宮사장은 과거 변비증세가 심해 몹시 고생을 했다. 장이 나빠 병원에도 자주 다니던 南宮사장은 생수를 먹어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생수를 먹기 시작했으나 그 당시 생수는 저급처럼 인식돼 있지 않은 상태라 먹을만한 생수가 없었다고 한다.

건축업을 10여년동안 하면서 주로 지하실 정수시설을 담당해왔던 南宮사장은 직접 정화생수기를 만들기로 결심, 정수시설공사를 하면서 느낀점,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정화생수기를 개발했다.

동남아에 소량이지만 수출도하고 있다. 정화생수기는 통안의 내용물을 교환할 수 있다. 수질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상수도물은 보통 1년정도 사용하면 필터 등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南宮 湘 사장〉

증류수와 생수가 다른 점은 증류수는 순수한 물만 모은 것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으나 생수에는 미네랄이 있다는 것.

시중에서 대량 판매되고 있는 생수는 탄산가스를 넣어 톡 쏘는 맛이 있으나 南宮사장의 생수기 물맛은 그런 것은 없다.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건축관계 아이디어도 7~8개를 갖고 있다는 南宮사장은 이 생수기가 대중화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 가격면에서 대중성을 갖고 생수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우>